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4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8년 11월 2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피같은 월급까지 포기하고 싸운다!



서울본사는 도망가고, 교섭 참가자 숨기고

유성기업의 작태가 가관이다. 농성 중인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짐싸서 도망가려다 농성단에게 걸렸다. 그러자 서울 사무소로 출근하지 않고 아산공장으로 출근해버렸다. 서울 본사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서울사무소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면 새로 들어 올 업체를 통해 형사고소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사무소 건물 소유주가 유성기업 유현석 사장이다. 허튼 짓은 그만 두는 것이 좋다.

22일은 회사측이 요구한 교섭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사측은 교섭 참가자를 ‘최철규 노무다당 대표이사 외 3명’ 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회가 ‘대표단 교섭이냐? 아니냐? 유현석 사장이 나오냐?’ 를 확인했지만 사측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확인하고 권한 있는 대표가 참여하는 교섭 날짜를 다시 보낼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모든 걸 걸었다!

유성기업은 지금도 끝까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교섭에도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대표단 교섭 2차례 벌인 후 아직도 다음 교섭조차 잡지 않고 있다. 22일에는 그나마 잡혀있던 교섭마저도 사측이 건너차버렸다. 유성기업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투쟁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지회 조합원들은 지금도 전면파업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43일째 전면파업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 대오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피같은 월급도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다. 유성기업 사측은 조합원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치솟았는지, 어떻게 해야 조합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연대는 더 커진다!

2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서는 충북본부가 지역에서 모금한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지부 조합원의 1만원 특별결의금을 비롯해 지역의 수많은 노동조합에서 연대의 뜻을 보내주었다. 투쟁기금은 앞으로도 더 건힐 예정이다. 투쟁이 지속될수록 연대는 더 커지고 있다. 시간끄는 것은 분노만 높일 뿐이다.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노조파괴범 유시영 엄중 처벌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8일(수) 15시, 천안지법
- ☐ 집회 후 오체투지 진행 예정

유성투쟁 다큐멘터리 영화 <사수> 공동상영회

- *12월3일(월) 18시30분, 청주CGV 서문 6관
- *무료입장, 관람신청은 지부 및 지회로 연락